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4월 21일(주일) 제1242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칸타타, 버스킹, 노방전도 등 부활절 기념행사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의 흔적’

오늘(21일)은 부활주일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다. 이 기쁘고 뜻 깊은 날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풍성한 부활절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서빙고 1~4부, 양재 1~4부, 부천 2~4부, 수원 1~4부, 대전 1~2부, 남양주 1~2부, 평택 1~2부, 인천 1~3부, 강동 1~3부, 양지 1~2

부 예배에서 칸타타를 한다. 부천 대학청년부는 부천중앙공원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시민들과 나눈다. 남양주는 어제(20일)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를 실시했고, 오늘은 차세대가 구리 장자못공원에서 계란을 나눠주며 노방전도를 한다. 강동은 천호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선물을 나눠주고, 나

비쇼핑몰 1층에서 전도를 한다.

지난주(15~19일)에는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렸다. ‘십자가의 흔적’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고 되새겼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금요일 예배에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갈 때 비로소 부활과 영광이 나타난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용숙 성도(은평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수남 형제(SNS공동체)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올해 고난주간 심야예배에는 서빙고 1,576명, 양재 1,002명, 부천 290명, 수원 246명, 대전 213명, 남양주 104명, 평택 71명, 인천 133명, 강동 97명, 양지 119명 등 하루 평균 3,850명이 참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5월 셋째 주부터 지인들을 위한 ‘순맞춤전도집회’ 5월 20일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전도사역본부에서 풍성한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5월 셋째 주부터 지인들을 위한 ‘순맞춤전도집회’가 시작되고, 5월 20일에는 60세 이상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믿지 않는 친구, 지인, 직장동료, 부모님 등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

순맞춤전도집회는 5월 셋째 주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진행된다. 전도대상자들의 사정과 취향을 파악하고 복음을 전하는 맞춤형 전도집회이다. 딸기밭, 낚시터, 영화관 등

이색장소에서도 순맞춤전도집회를 할 수 있다. 순맞춤전도집회는 인사, 만남, 특별한 이야기, 나눔, 간증, 편지읽기, 4영리 나눔, 영접기도, 축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감사카드, 안부전화 등으로 전도대상자들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 또한 새신자들을 순예배나 열린새신자예배에 초대하거나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배학교, 회복사역 프로그램 등에 안내할 수도 있다.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5월 20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대상이다.



지난해 5월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8일(주일) 오후 5시까지 주일통합데스크에서 하거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카톡플러스친구 ‘행

복드림2019’를 이용하면 된다. 평일에는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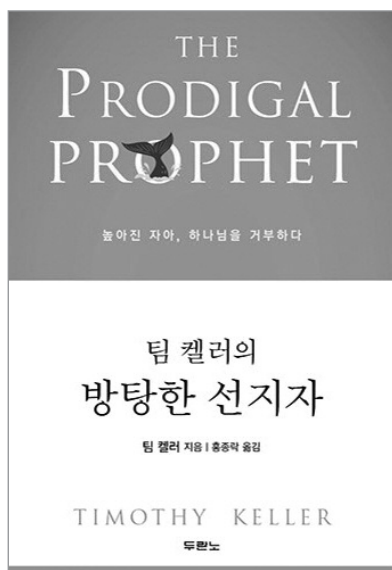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팀 켈러 목사의 <방탕한 선지자>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팀 켈러 목사의 인지도 때문이다. 팀 켈러 목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일 뿐 아니라 그가 저술한 책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그의 책 <기도>, <내가 만든 신>, <일과 영성>뿐 아니라 <탕부 하나님>에서 보여준 팀 켈러 목사의 통찰과 깨달음에 감탄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한 선지자>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

또 하나는 서점 직원 한 분이 꼭 읽어보라고 권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책을 권했다. “이 책을 통해서 삶이 변화됐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책의 내용이 몹시 궁금해져 읽어보기로 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책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한 요나를 ‘타자화(othering)’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요나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의식이 매우 강해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과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구원을 용납할 수 없었다. 요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요나는 물고기 배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경험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고백한다.

물고기 배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외쳤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순종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그 외침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다. 이교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며 요나는 또 넘어졌다. 자신은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는 타자화의 모습이 계속됐다.

팀 켈러 목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첫째, 죽을힘을 다해 도망하는 이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나의 도망은 불순종과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 자기중심성, 자기 행복추구,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모른 척하고 싶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과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 민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은혜 앞에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이다.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타자화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세상, 율로라이프(YOLO: You Only Live Once 한번 뿐인 내 인생 즐기며 살자), 옹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이 최선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나를 향한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교회 울타리 속에서 우리끼리 구원을 노래하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 자기중심성, 타자화, 배타성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방탕한 선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책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으로 회복되는 길을 제시한다. 편견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며,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인식하게 해준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김현실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고난을 주시나요?

답: “하나님께서서는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평소 신앙이 매우 좋은 집사님이 계신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며,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매년 자비를 들여 아웃리치를 다녀온다. 옆에서 보면 참으로 귀감이 되는 집사님이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집사님이 특별한 원인 없이 좌측 부위의 골반과 다리에 통증이 심하게 생겨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다닐 수도 없게 되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평소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나?”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 집사님은 며칠 뒤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평소 집사님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아프니 아내의 존재가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아내에

게 더 잘해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이처럼 고난 뒤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람의 죄 때문이다. 항상 말썽만 피우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저놈 천벌을 받은 것 같아”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다. 고통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 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아주 심한 고통을 말할 때 ‘애 낳을 때처럼 아파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 죄지은 여자 하와로 인해 해산의 고통이 왔다. 아담 역시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고통이 오게 되었다. 이처럼 죄의 대가로 사람에게 고통이 오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이것은 죄를 지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회초리와 같다. 부모는 자녀가 잘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매를 든다. 하나님도 죄지은 사람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고난을 주신다(시 119:67, 71).

둘째, 앞의 집사님처럼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성경(벧전 2:19~20)에서는 부당하게 생각될 정도로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고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사람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test)을 주신다(욥 23:10).

둘,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

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축복의 통로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셋,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신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이 그 예다. 그는 후에 눈을 뜨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치료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간증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쏠 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해준다면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장경문 장로
(양천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엘리아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도 엘리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대결과 전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의 기도가 참 귀합니다.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도록 부름 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왕은 그 어떤 왕보다 악하게 우상 숭배에 치우쳤던 인물입니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왕상 21:25).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세벨의 충동질을 이겨낼 수 없었던 아합왕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 표현할 만큼 영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3년 반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예언하도록 부름 받은 자가 바로 엘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임했다면 백성들이 아합왕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모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머뭇거리다’는 단어는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아가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을 때도 돌아오지 않았고, 기근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아는 아합왕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달하는 책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격적인 요법

“엘리아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

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약 5:17~18).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는 책이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1장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5장에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함께 기도하라”, “죄를 고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겠습니까? 바로 엘리아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아를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책임만이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바로 보응하지 않으시기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죄악으로 치우쳤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절정이었던 아합왕 시대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결을 도전하는 엘리아

“엘리아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왕상 18:21).

엘리아의 촉구에 대꾸하지 않은 것은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충격적인 역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숭배자 40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과 대결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반대해서 모이지 않았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은 1,740피트(550m) 높이에 동서남북으로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산입니다. 과거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적이 있는데 아합 시대에는 우상이 가득한 산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엘리아는 우상에게 빼앗겨 버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

아계심과 거룩한 임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아가 “두 마리의 소를 가져와서 한 마리씩 택하고, 그 소를 각을 떼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에게 구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자”고 백성들에게 대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백성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좋다고 한 이유는 바알이라는 신이 가나안 땅의 태양신이었고, 날씨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 일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천둥과 번개를 내릴 뿐만 아니라 불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아가 그들이 믿는 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엘리아는 바알 숭배자에게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광란의 몸짓을 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아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아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왕상 18:27).

엘리아의 조롱에 자극을 받은 바알 숭배자들은 자해하며,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며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무조건 간절히 구하고 떼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응답을 만들어가려는 것은 거짓된 종교 신앙입니다.

둘째, 거짓 종교의 특징은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기호 같은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중세 교회가 “성경은 누구나 읽고 해석할 권리가 없고 사제만 있다”고 한 것은 거짓된 종교화 된 것입니다. 소수의 특권층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기호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셋째, 거짓 종교의 특징은 자신을 불행하게 학대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응답을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의 동정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면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종교의 흐름을 보면 결국 자신을 학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림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신실하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종교에도 신실함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내용이 진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악한 자도 효과적으로 악해지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열심, 신실함, 충성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마지막 걸림돌

참된 구원의 역사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사실 종교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참된 복음의 진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노르웨이의 복음주의 신학교에 오 할레스비(Ole Hallesby)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Religious or Christian〉이라는 책은 ‘종교와 기독교’라는 장으로 마무리 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성이 복음의 마지막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문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영광과 광신의 모든 위험을 피해온 유일하게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참 기독교에 대하여 얼마나 모르는가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 사람과 접촉할 때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그런 사람의 삶이나 간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삶은 그들에게는 과장과 극단으로 가득한 편협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참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관련해서 기쁨, 슬픔, 불안, 고통에 대해 말할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간단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태도를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 회개, 율후, 악마, 영적 전쟁이 모든 것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가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실망, 관계,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
봉사 강요 말고, 체계적 신앙교육과 지속적 관심 보여줘야

“더 이상 교회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절대 교회에 가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떠난 한 청년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가 가슴 절절하게 느껴졌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저마다 그 이유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상처와 아픔이 청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도대체 그 무엇이 청년들을 아프게 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했는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만나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회 내 관계의 아픔, 무조건적인 헌신 강요, 교역자의 권위적인 태도 등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척 다양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봤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아마도 2005년부터 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살펴보면 1995년 당시 10살에서 24살이었던 기독교인들이 2005년에는 20살에서 34살이 되었는데 이 연령층의 이탈이 가장 심각했다. 10년 새 6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통계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에서 20대 기독교 인구가 2004년도에 비해 무려 5%, 30대 기독교 인구는 3% 감소했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6년 이만식 교수(장신대)가 크리스천 청년 2,200명 대상으로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크게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관계,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였다. 교회, 지도자 부분에서는 ‘교회 운영에 대한 실망’이 2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역자에 대한 실망’ (20.3%), ‘과다한 헌신 요구’ (19.6%) 순이었다. 관계, 공동체 부분에서는 ‘교회의 배타적 분위기’ (25.8%),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24.7%), ‘친한 사람이 없어서’ (18.2%)라는 응답이 나왔다.

물론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모든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무관하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상처받은 청년들을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 또한 요구된다.

청년들이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

그렇다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을 만나 솔직한 속내를 들어봤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C자매(25세, 취업준비생)는 2년 전 교회를 떠났다. 그녀는 “같은 교회 청년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성어, 유치부 교사 등을 도맡아 섬김 정도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자신

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이 평소 열심히 봉사하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친구들이 저를 두고 “너무 나쁘다”, “꼴 보기 싫다” 등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뿐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 목사님께 상담도 해봤지만 목사님은 제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D자매(23세, 대학생)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는 “교회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문화가 너무 많다”며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둘째, 교회가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만 강요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생활고로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E씨(28세, 직장인)는 “교회봉사만 강요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고백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갑작스럽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주

일예배를 빠진 것은 아니에요. 주치위원, 미화, 순장 등 하던 봉사를 잠시 내려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봉사를 하지 않나?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헌신만 강요하셨어요.”

셋째, 교역자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이다.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F씨(32세, 학생)는 한 때 목회자의 권위적인 태도에 강한 반감을 갖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

“그 목사님은 항상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강요했어요. 또 질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제 의견을 피력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나 더 하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청년들의 말 속에 해답이 있다

교역자와 지체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헌신만 강요당해서 지쳐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을 품기

위해서 교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들의 말 속에 해답이 있다.

첫째,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힘들 때일수록 더 헌신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전장과 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다. 그런 청년들에게 봉사나 사역을 무작정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격려해줘야 한다.

둘째, 교회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알려줘야 한다. 또한 목회자의 방이 청년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들이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주일밖에 없다. 하지만 주일마저도 담당목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청년들이 목회자를 찾아가 고민을 스스럼없이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면 마음의 턱도 높아지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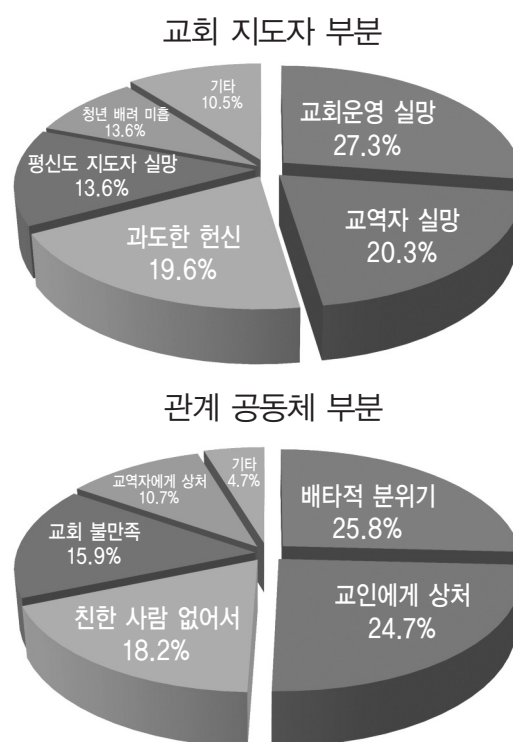
셋째, 오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를 이미 떠났다고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대상은 결국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작은 섬김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품는 가장 크고 따뜻한 품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 순원,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어떻게 지내니?”, “요즘 고민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직접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다.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자신을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줘야 한다. 실제로 I자매(33세, 취업준비생)는 “교회 리더십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순원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J씨(26세, 학생)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진짜 속내를 내비쳤다. 이 청년의 고백이 교회를 떠난 모든 청년들의 속마음일지도 모른다.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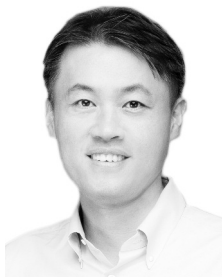
출처: 이만식 교수(장신대, 2016년 조사)



기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

예배의 회복, 공동체성 회복, 소통의 회복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이며 민족의 미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현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만든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20~30대 청년들이 교회를 급격하

게 떠나고 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미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고, 청년부가 존재하는 교회도 그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아직까지 온누리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고 계시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온누리교회만 예외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잃어버린 청년들을 다시 찾는 방법

첫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청년들의 눈에 세상이 교회보다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따라 습관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년이 된 후에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지속하기 어렵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년들은 더 이상 전통적 권위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시대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면의 영적인 갈망도 동시에 커지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대안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방황하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주일예배이다.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 이른바 ‘안개성도’가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한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깊은 영적 방향 속에 있었던 청년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오래간만에 드렸던 예배였다는 고백들이 많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굶주린 그들에게 줄 진리의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잃어버린 청년들을 다시 찾기 위해 가장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이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때때로 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교회가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남은 곳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소식이 들릴 때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둘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공동체에서 겪은 관계의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있는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커져갈수록 청년들의 마음에는 어디엔가 소속되고자 하는 갈망이 커져간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세워지는 조직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은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순’이다. 청년들이 실제로 만나는 공동체는 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 하나 하나가 단순한 관리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곳에서 말씀 중심의 양육과 삶의 나눔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떠났던 한 청년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에서 만난 지체들의 사랑과 관심이었던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다. 다른 한 청년은 삶이 힘들어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교회를 몇 달 동안 떠났었는데 공동체 순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다. 또 어떤 청년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교회 친구가 자신을 잊지 않고 수련회로 초대해주었고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제 공동체 순장으로 섬길 만큼 성장하기도 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을 청년들을 순원들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된 것이다.

성인공동체와 청년 사이의 세대 간 연결도 매우 중요하다. 청년의 때는 믿음의 모델, 삶의 멘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공동체에 모델이 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 청년은 교회에서 연결된 권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만남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성인세대와 청년세대가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연결되고, 믿음이 계승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성인세대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셋째, 청년세대와 소통을 회복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진리를 청년들에게 전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지금 청년들은 다원주의, 상대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는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전 세대와 같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

청년들을 교회에서 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신앙적 질문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교회는 그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전하되 공감과 경청, 대화를 통한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

소통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소통이란 상대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진로와 취업의 문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결혼문제 등 청년들이 부딪히고 있는 실제의 삶은 너무나 힘들다.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먼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성인세대가 멘토가 되어 격려하고 축복해 준다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기다리는 아버지와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고, 진정으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줄 공동체로 돌아가기 원하는 갈망이 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다. 또한 깊은 영적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리의 양식이 필요하다.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와 다음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까지 낙태, 동성애, 성 윤리에 관심 가져야”

이명진 소장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멈출 수 없는 꿈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역지가 너무 많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자립교회와 기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선교사와 선교지, 불우한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 등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 우리가 도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자와 기관이 있다.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다. 이 소장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계와 시민들에게 생명존중 사상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얼마 전 낙태법 위한 판결이 나면서 크리스천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게 됐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명진 소장은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생명존중 사상이 없어진 세상은 어떨까? 상상만 해도 무섭다. 생명존중 사상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핵심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중한 가치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낙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낙태법 폐지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강한 반발을 표현하는 단체와 시민들도 있었다. 낙태법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함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며 “낙태법 폐지를 반대해왔고, 생명존중사상 확대에 더 많은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6일 이 소장을 만나 낙태법 위헌판결이 가진 의미와 그에 따른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낙태법 위헌 결정이 주는 의미

이 소장은 낙태법 위헌 판결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기조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작 중요한 남성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어. 많은 남성들이 임신이나 출산 이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태법 폐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더욱 어

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생명운동단체에서 10여 년 전부터 일명 ‘Hit and Run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남성들이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엄중한 페널티를 부과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버렸습니다.”

현재는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2주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 소장은 임신 22주는 현재 의술로 태아가 엄마 몸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명을 숫자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재판관들의 가치관은 철저히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숫자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논객 벤사 피로는 정치논평 팟캐스트 ‘The Daily Wire’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한국 헌재 판결의 일부 근거는 형편없이 비논리적이다. 그 판결은 태아가 생존과 발달을 위해 산모의 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분리된 생명이 아니고 따라서 생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태어난 아이는 과연 독립적으로 분리된 생명인가? 태어난 지 한살이 된 갓난아기는 먹고 싸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에 의존한다. 일부 장애인도 24시간 케어를 필요로 한다.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기계에 의존한다. 이들은 생명권이 없다는 것인가? 한국 헌재에 따르면 태아는 물론 갓난아기와 어린이들, 장애인들 등은 ‘생명권이 있는 독립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된다.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는 결코 신체 발달의 여부나 타인의 도움의 필요 여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 헌재는 어찌 구니없는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인간생명을 경시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뒷문을 열어준 또 다른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만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다

헌재가 판결문에서 강조한 것은 “임신 여성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태아의 보호는 무의미하다”는 문장이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큼이나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함께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낙태 시술에 대해 바로 알고 건강한 시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한 불법시술이 많아진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의사가 부족한 시대의 상황을 끌어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불법 자격자에 의한 낙태 시술은 거의 없으며, 낙태 시술이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시술 주장은 낙태를 정당화하려는 궁색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에게 발생하는 위험성과 합병증이 더 높습니다.

모든 의료 시술은 위험성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낙태시술 역시 임신 초기이건 어느 시기이건 간에 많은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낙태가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려둔 채로 임신 초기 낙태가 임신부에 게 부담이 적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 무슨 이유로 건강권이 위협받는지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태아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앞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모든 낙태 때문에 죄 없는 태아들이 분별없이 성을 즐긴 자들의 책임을 안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무죄한 아이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흔적을 없애려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불편하거나 부담되면 언제든지 태아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낙태법 폐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법 폐지는 낮아지는 성 윤리와 생명경시 풍조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소장도 낙태법 폐지는 생명을 개인의 소유로 보는 세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패악한 윤리적 타락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

낙태법 폐지는 표면에 드러난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대는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와 낮아진 성 윤리로 끓어가고 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할과 책임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과 동의하는 것도 좋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2년 전 성산 장기려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국내 민간단체다. 의사, 변호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과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단체이다. 정책제안 같은 적극적인 활동들과 강의, 인식개선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군중의 눈을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숨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낙태, 동성애, 성 윤리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 교사들이 먼저 공부하고, 성도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강연이나 책을 읽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국회나 정부 입법담당자나 재판관들이 SNS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02-744-3402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삶

가정예배 양식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예수 부활했으니(새찬송가164)	다같이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20:19~22	다같이
설교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삶'	말은 이
말씀과 일상 나누기		다같이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경배와 찬양 112)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삶

들어가는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나 교회에서 다루는 종교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가정이 능력 있는 새

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19, 21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과 무관한 삶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갇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지적하시거나 두려워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용서하시듯 다시 용기를 주시는 평안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정도 이제 온갖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21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이나 문제와 사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요 14:27).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20)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정도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22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담대히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속 4:6).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진실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이루어집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면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 각 사람들 마음속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찾아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정은 이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다거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처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첫째, 험악한 이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전하는 삶입니다. 둘째,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셋째, 평안과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가정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영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정예배 상담소

가정예배 38년차 권혁승 교수에게 배우다

“나눔과 풍성한 식탁을 활용하십시오”



권혁승 교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

가정예배가 꼭 필요한가요?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바퀴가 하나면 굴러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가 없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출발을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바이트**’라고 하는데, 바이트는 성

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작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할까요?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예배 형식을 지키는 게 부담이 됩니다

“가정예배 형식은 그 가정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교회 예배처럼 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예배는 여러 가정이 모이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 만큼 교회 예배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공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정해야 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살 세 살 자녀들과 어떤 형식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가정예배입니다. 끌어안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제 손녀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만 부르면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이 찬송은 우리 가정예배의 일종의 로고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끔 형식을 만들면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정예배 잘 드리는 실제적 팁을 전수해주십시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설교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간증을 나눠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어른들은 나눔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훨씬 잘 나눕니다. 부모들은 잘 물어보고 잘 경청해야 합니다.

정말 실제적인 팁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유

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좋은 음식을 마련합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기다립니다. 부모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은 식탁을 잘 활용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사전에 자녀들에게 주문 받은 과일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도 지금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토요일을 위해서 냉장고를 채웁니다. 막내딸이 망고를 좋아해서 가끔 망고도 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구순이신데도 아이들을 위한 김치를 담가 나눠주십니다. 값이 비싼 외국산 과일 신청이 많아 설교를 하며 제철과일을 잘 먹어야 창조신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철과일은 값이 싸니까요.”

CGNTV 가정예배 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말씀과 나눔, 적용편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문의: 02-796-9800, www.cgntv.net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VI)

3.1독립선언의 정신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자주독립(自主獨立) 정신

3.1운동이 추구한 주된 이념과 정신은 자주와 독립이다. <3.1독립선언서>는 일제의 무력에 의한 강점기를 산 조선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던 자유와 독립을 선언했다. 3.1운동은 대

내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조선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자손만대에 알리며 민족자존(民族自尊)의 정권(政權)을 영유(永有)케 하려 했다. 당시 서구 식민지 쟁탈의 온상이 되었던 청국(淸國)만을 바라보던 대한제국 정부는 쇄국정치로 우물 안 개구리 같이 나라이둔 국방력과 경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의 시대적 물결에 편승한 일본제국주의에 여지없이 국권을 강탈당한 것이다. 3.1독립선언서에서 민족대표 33인은 대한제국 정부가 상실했던 나라의 자주독립 정신과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한국민족의 자주독립 능력을 표현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 작가이자 여행가 헤세-바르텍(Ernst von Hesse-Wartegg)은 1894년 6월 말 부산에 도착했다. 그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비된 일본인 거주지였다.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자마자 조선의 쇠락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된다. 부산을 떠나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500년을 이어온 왕조의 수도라고 하기에 서울은 너무도 초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조선이 처한 일반적 조건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다. 이미 중국인과 일본인을 접해본 그의 눈에 조선인은 앞의 두 나라 사람들에 비해 뒤질 것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들을 능가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 있다.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에서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조선인에 대한 그의 직관은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으나 미래를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5년이 지난 후 한국은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되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소득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2018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불, 국가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국가)에 가입했다.

영국 출신의 더 타임즈, 가디언, 전 주한 기자 클럽 회장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은 그의 최근 저서 <한국, 한국인(The New



1919년 3.1 운동 당시 세계에 한국(조선)의 자주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3.1독립선언서>.

Koreans, 2017))에서 한국의 세 가지 기적을 지적하고 있다. 남한의 경제발전을 일컬었던 한강의 기적, 군사정권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발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한류(韓流)이다. 그는 한국인의 발전 원동력은 외세 점령과 국가 분단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1982년 처음 한국에 와서 36년째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및 북한 담당기자로써 날카로운 시각과 통찰로 한국사회를 추적한 저명한 저널리스트이다. 브린은 오늘날 한국의 세계무대에서 확보한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같이 피력한다.

“이제 나는 한국 스토리의 진정한 중요성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되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어떤 나라든지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푸른 눈의 영국 기자 브린의 언급은 1세기 전 1894년 오스트리아 기자 헤세-바르텍의 언급이 한국인의 자주 독립 능력에 대해 바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민주(自由民主) 정신

자주 독립국가가 건설됨으로써 조선 백성의 각 개인의 자유권과 기본권이 보장된다.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있어야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된다. 자주독립국을 세우는 근본목적은 ‘자유민(自由民)’ 곧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민이 되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결국 자주독립된 나라를 세우려한 목적과 취지는 한국인들이 자주독립된 나라의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자유 민주 사회, 곧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주독립된 나라 건설은 자유민주사회의 기반이다.

3.1운동 이후 설립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2조는 “남녀, 빈부귀천을 포함해서 모든 계급을 조월하는 나라를 만든다”고 선언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신분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기회를 얻어 평등한 시민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다.

3.1운동은 근대적 개념의 국민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혁명적 사건이었다. 대한제국의 신민(臣民)은 국가가 망한 후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복벽주의(復辟主義)적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점차 근대적 개념의 국민으로 변화되었다. 국가 백성들의 자유와 민주정신을 담보하지 않는 자주독립국가 건설은 3.1정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정신은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더없이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길이 지켜나가야 할 민족사적 최대 덕목이라 할 것이다.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자유민주 이념으로 세워진 정부였다. 당시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의 공산주의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 극동피압박민족대회를 만들어 약소민족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막대한 자금을 주었다.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임시정부를 지킨 사람이 바로 주석(主席) 백범 김구였다. 그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도와 안창호, 조소앙과 같은 인사(人士)들과 함께 임시정부가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켰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미국 선교사 조지 애쉬모어 피치(George Ashmore Fitch, 1883-1979)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해 한인들을 도운 한국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후원하였다. 상하이 한인교회의 한진교 장로와 미국의 교포들이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1943년 김구식이 “미주동포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임시정부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공산주의로 넘어갔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세력을 갖고 8월 9일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해방 후 3년 동안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공화국을 세울 것인가를 놓고 싸웠다. 그 결과 북한은 소련을 등에 업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 남한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기독교인들은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지도자들은 자유 민주 이념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자유 민주 정신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에 기초해서 세워진 국가이며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다

인류공영의 세계 평화 정신

3.1운동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양육강식의 제국주의를 종식시키고,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민족자결을 통해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3.1운동은 국내외 거주하는 한민족의 평화운동이었다. 3.1운동 평화사상은 성경의 평화(shalom, 에이레네 eirene)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아서 11장에 선포된 평화와 3.1운동의 평화사상이 서로 상응하고 일치한다. 3.1운동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일어난 5.4운동이 바로 그 사례다. 독립선언서에는 조선 독립이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양 평화를 그 중요한 일부로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행복의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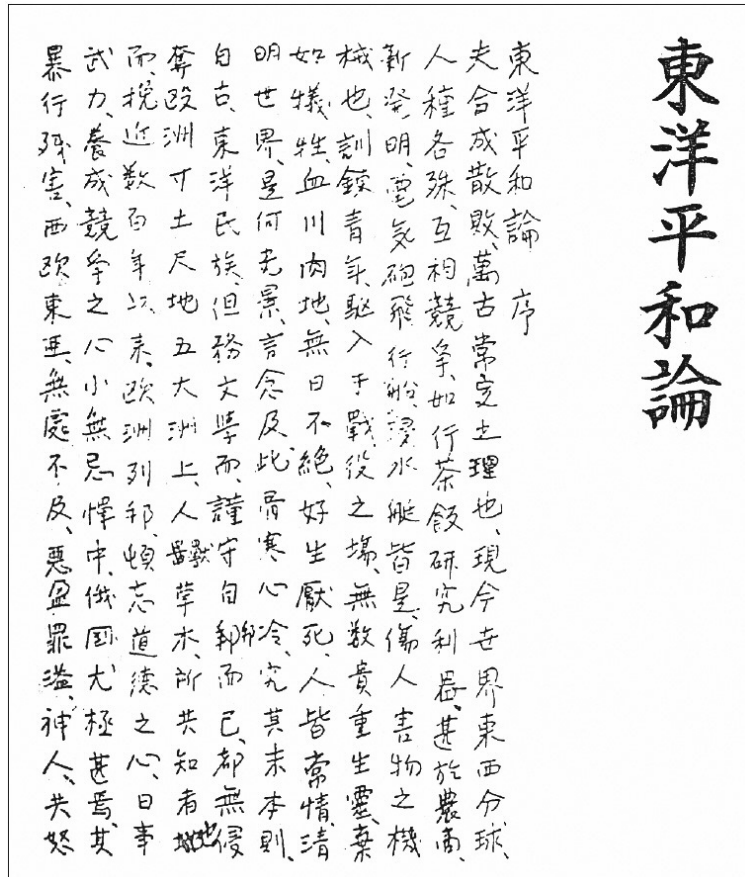
하고 있다. 나라를 잃었어도 숭고한 이상을 품은 선조(先朝)의 정신은 지금도 놀라움을 준다. 인류 공영(共榮)이란 공화정신으로 공동체 정신이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보장을 넘어 사회구성원이 함께 번영하고, 공생하는 사회공동체를 이루며, 인류의 공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공화정신을 이루는 데는 서구문명의 유산으로 내려온 대의제도, 법치제도, 시장경제, 자원단체 등의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세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존 무어 선교사는 한국이 구원의 햇살을 드는 날 세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었다. 비록 식민지로 일제에 종속상태에 있으나 3.1정신은 조선왕조의 쇄국정신에서 벗어나 동양평화를 말하고, 인류의 공영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3.1정신에는 근대화 신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조선민족의 혼을 일깨운 기독교적 세계동포주의의 사상에 기인한다. 3.1운동 정신은 인간은 타인과 다른 생명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통찰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다. 3.1정신은 모든 인간 및 생명체와의 연대와 사랑으로 확장을 강조한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정신 구현

〈3.1독립선언서〉에 담겨있는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및 인류공영의 평화정신은 3.1운동이 일어나기 꼭 10년 전 1909년 이토 저격을 결행한 안중근 의사가 제창한 ‘동양평화론’을 떠올리게 한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 3국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 3.1운동의 평화사상은 민족의 자주가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와 반드시 연계된다. 안중근이 제안한 3국 평화안은 현재 유럽연합국(EU)에서 거의 유사하게 현실화되었다. 작금 과거사 문제와 독도 및 센카쿠열도(釣魚島)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 중, 일 3국의 현실에 유념할 때 매우 주목해야 할 정신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사이에 끼여있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3.1정신의 주요 덕목 중 하나인 인류공영과 평화정신을 체화하고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3.1독립정신이 강조하는 비폭력 정신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강 이승훈은 철저히 예수의 정신에 따라 비폭력, 평화에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폭력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행동의 규범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예수의 정신, 십자가는 비폭력적 저항이 부활의 신념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비폭력이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으로 삼켜서 원수를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비폭력으로 원수를 삼켜서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훨씬 강한 개념이다. 조선의 독립은 우리뿐 아니라 압제하는 일본과 함께 고통 받는 중국 등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가 목적이다. 우리 힘으로만 독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2019년 3월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에 참석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의거 후 1910년 3월 중국의 뤼순 감옥에서 집필한 미완성의 글.

한 일본인들은 “동양평화론을 주창한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데 시기는 따로 없다”고 했다. 전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교사 스즈키 히토시(鈴木仁, 66)는 1994년부터 안 의사 추모식에 참석해왔다. 그는 안중근과 그의 동양평화론을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로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 안중근 추모식에 매년 참석해온 스가와라 도시노부(菅原敏允, 86)는 미야기현 구리하라시 국제교류협회 회장이다. 구리하라시는 뤼순 감옥에서 안 의사와 인연을 맺은 일본 한병 지바 도시치의 고향이다. 그는 5년 동안 일본인 500여 명에게 성금을 모아 구리하라시에 안중근 의사와 지바 도시치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3.1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및 인류공영의 평화정신은 10년 전 1909년 이토 저격을 결행한 안중근 의사가 제창한 ‘동양평화론’에 선구적으로 표명되었다. 오늘날 안중근의 순국희생에 감동을 받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의 파급효과’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아베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軍國主義) 과거로 화귀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패권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동북아의 긴장 속에서 3.1독립선언서의 동양평화론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실천하는 정신으로 파급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후대(後代)가 나아갈 꿈과 비전 제시

기미독립선언서는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천명하고 있다. 일제의 총칼에 의해 얼어붙은 군국주의 세상을 거부하고 정의, 자유, 평화, 평등, 화해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선언한 것이다.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새 하늘과 새 땅” 문구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영향을 받은 종말론적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음침한 옛집(古巢)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흔쾌(欣快)한 부활(復活)’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문구는 희망찬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새 시대를 향해 한민족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은 남궁억의 기러기, 흥남포, 김형준의 봉선화 등의 노래에서도 나타났다. 민족을 향한 꿈과 비전은 독립운동가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1878~1938)의 정신과 삶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은 〈100세 일기〉에서 17세 때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강연을 들었다고 회상하면서 도산(島山)의 삶과 정신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도산(島山)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사랑과 인제 교육이었다.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잊어서는 안되며, 그 사랑을 애국정신으로 보답하지는 간곡한 호소였다. 도산은 웅변가였다고 하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더 컸다. 웅변이기 보다는 기도하는 열정이었다.”

3.1운동은 외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의 전개에도 큰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등은 매년 3.1절에 기념식을 열고 거족적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만주 무장독립운동단체의 통합, 신간회와 독립당축성회 결성, 좌우 합작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도 3.1운동 경험에 힘입은 바 크다.

정의, 인도(人道), 공생, 존영(尊榮)

정의, 인도, 공생, 존영이란 정신은 일제가 총칼로 조선 민중의 자유 독립 정신을 말살하려는 무단정치에 대한 격(格) 높은 도덕주의적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예수의 산상 설교 정신에 부합하고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5-6).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9-10).

인도주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에 합치하며, 애국가 후렴이 노래하는 바같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귀결된다.

3.1독립운동 당시 군국주의 일본에도 조선 민중의 독립만세소리와 동행한 동조층이 있었다.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와 나카라이 기요시(半井清)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전자는 일본 최고층 인사였고, 후자는 당시 총독부 고위관리였다. 이들은 당시 군국주의 일본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는 인도주의를 신봉하는 상류층 지식인들이었다. 도쿠토미 소호는 일본 최고의 국수주의자로 〈일본국민사〉 100권 총서를 저술한 황도파(皇道派)인물이다. 조선총독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울 프레스 총감독으로 있으면서 3.1운동 당시 1919년 3월~11월 수십 편 논설을 통해 인도주의를 외치고, 총독부 군경의 만행을 매섭게 고발했다. 도쿠토미 소호는 일본 교토의 가톨릭 대학인 도시사대학 출신인데 그가 받은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이 인도주의를 신봉하는 세계 시민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일본의 기독교교회가 이웃 나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료 기독교인들에 대한 총독부의 살벌한 핍박과 잔학한 행위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음을 신기할 뿐이라고 아쉬웠다.

나카라이 기요시는 3.1독립운동을 왜곡해서 공격한 자들을 참으로 난처한 사람들이며, 한국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내었다. 당시 일본 언론 〈요미우리신문〉이나 〈아사히신문〉 역시 일본 군경의 만행(蠻行)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내었다. 이 두 언론은 3.1독립운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민중들의 집단행동이 아니고 지식계급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 총독부의 강압정치가 정도를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 총독부가 변하는 세계 사조와 사상 추이의 대세에 눈이 어두워 있었다는 것, 총독부의 강압적 정치는 천박했다는 것, 일제 군경의 소요진압 방법이 ‘벨기에 훈족들(the Huns)과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등 총독부의 무단정치를 규탄하는 글들을 썼다. 이러한 비판 논조는 당시 일본 언론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논조였다. 당시 총독부 내사국장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도 한국 교회를 계속 옹호하고 그 군경을 동정하고 있었다. 3.1독립운동 때 나타난 양심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일본 고위층이나 일부 일본 언론의 3.1독립운동 옹호는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화해와 공존공영에 희망의 다리를 놓은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 생각되어진다.

3.1정신 자주독립, 자유민주, 인류공영, 민족 화합과 새 시대 꿈과 비전, 정의, 인도, 공생, 존영(尊榮) 정신 등은 서구 근대화 정신을 수용한 것이며,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은 선진민주국가의 가치인 자유, 진리 정의다. 당시 신자들은 자유를 찾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길임을 물론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계속)

기독교학술원 ‘제12회 석학초청강좌’

김형석 교수 ‘나의 삶과 영성’ 주제로 강의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지난 19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제12회 석학초청강좌’를 주최했다. 이번 초빙된 석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다. 이번 기독교학술원 석학초청 강좌에서는 김형석 교수의 100세 기념 감사예배도 함께 드려 더욱 뜻 깊었다.

이날 김형석 교수는 ‘나의 삶과 영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진리는 단순히 교회 안의 진리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가치관”이라며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사랑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학술원 석학초청강좌에서 김형석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김영한 박사는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랑을 널리 전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전 온누리교회 초청예배 ‘러빙유’

5월 5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대전 온누리교회가 초청예배 ‘러빙유’를 5월 5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드린다. 초청예배 러빙유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김상수 목사의 말씀, 플루티스트 송

솔나무의 특순과 간증, 영상편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는 “초청예배 러빙유를 통해서 지역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일.하.세.아카데미’ 개강

5월 11일 6월 8일까지 매주 토 13시

‘일하세.아카데미’가 개강한다.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SK V1 Center 301호’(서울시 영등포구 41길 11)에서 진행된다.

일, 하나님이 주신소명-성경적 직업관, 일터문화-성경적 문화관, 일

터에서의 성공-성경적 성공관, 일터와 재물-성경적 재물관, 일터에서의 대인관계-성경적 대인관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4122-7255

/ 권찬송 기자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부모반 6월 1일, 청소년반 6월 15일 개강

제5기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가 개강한다. 부모반 6월 1일, 청소년반 6월 15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양재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는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이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부모 20가정이 대상이다.

부모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관계기술훈련, 청소년기 자녀 이해, 삶을 바꾸는 공감 대화법, 부부 이해와 역할, 청소년반은 나 이해하기, 멘토링, 정체성과 부모이해, 청소년 성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곽상학 목사(새롭중학교 교사),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김지

홍 장로(연세대 교수), 박성덕 소장(연리지가족부연구원) 등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5월 24일까지 전화(02-3215-3532) 및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과 부모 각각 10만 원. 문의: 02-3215-3532

▼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신문 12면에 게재된 권사칼럼에서 윤정순 권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기에 바로잡습니다.

남양주 차세대 교사대학 개최

남양주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지난 13일 ‘교사의 소명과 차세대 발달단계’를 주제로 교사대학을 개최했다. 교사 46명이 참석한 차세대 교사대학은 이해영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의 설교, 노태규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초등부)의 강의, 헌신 서약서 작

성, 변대섭 목사(남양주 차세대)의 워크숍,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변대섭 목사는 “차세대 교사대학을 통해서 교사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되새기고, 차세대를 이해하며, 교사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남양주 M미션 물품모집

남양주 M미션에서 5월 12일 개강하는 한국어교실과 기타수업, 매주 주일 드리는 열방예배, 험스바의료선교팀의 의료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화이트

보드 3개, 마이크 3개, 스피커 2개, 마이크 스탠드 2개, 보면대(악보 거치대) 4대, 접이식 테이블 6개, 의자 30개 등이 필요하다.

문의: 010-3937-3927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4844	지은실	중종로	1134885	안영희	이수	1134925	이선영	여호수아	1134951	이진아	양재
1134845	이석진	분당A	1134886	이진숙	경기A	1134926	김예인	여호수아	1134952	이미성	대전 O2
1134846	김주희	양지 동누리	1134888	박정자	수원 남누리	1134927	이형직	J4U	1134953	이진희	대전 O2
1134847	이순옥	강남C	1134890	강승현	양재	1134928	이신재	J4U	1134958	류주연	가정사역
1134848	위해남	이촌	1134892	양현모	양지 서누리	1134929	정성호	J4U	1134959	성정모	부천 소망
1134849	김윤식	인천 소망	1134904	이승복	인천 소망	1134930	조보금	J4U	1134960	윤지영	성동광진
1134850	박선희	인천 소망	1134905	김선숙	인천 소망	1134931	이성원	J4U	1134962	김민희	양지 서누리
1134851	조옥임	분당B	1134906	김순미	인천 소망	1134932	허미숙	인천 믿음	1134964	김영진	강남A
1134853	명이숙	부천 믿음	1134907	김민환	여호수아	1134933	곽현진	신용산	1134966	조종욱	인천 소망
1134854	오승준	S브릿지	1134908	노병현	여호수아	1134934	이축복	용산	1134967	조영주	수원 북누리
1134855	김은희	강남C	1134909	정건웅	여호수아	1134935	서만철	인천 소망	1135006	김민지B	양천
1134856	민주현	인천 소망	1134910	김태욱	여호수아	1134936	김윤덕	동작	1135007	변정수	도곡
1134857	김민수	평택	1134911	김한나	여호수아	1134937	최재원	하북	1135008	김성숙	양지 서누리
1134858	문경민	강남C	1134912	정슬기	여호수아	1134938	최정원	하북	1135010	임미숙	인천 소망
1134859	박지호	한강	1134913	김규형	여호수아	1134939	정재형	하북	1135020	정태준	양천
1134860	신희라	부천 화평	1134914	곽준영	여호수아	1134940	최은택	하북	1135021	김미경	대전 동누리
1134861	권영세	서초B	1134915	김주희	여호수아	1134941	최문호	하북	1135022	황연화	SNS
1134862	주미수	도곡	1134916	이경진	여호수아	1134942	임혁준	인천Web	1135023	장윤희	SNS
1134863	천유희	하늘	1134917	이지유	여호수아	134943	김주원	인천Web	1135024	이혜린	SNS
1134864	조성국	하늘	1134918	서정수	여호수아	1134944	조유진	인천Web	1135025	유송옥	SNS
1134865	길재희	하늘	1134919	박미나	여호수아	1134945	김선옥	동대문중앙	1135026	이유수	SNS
1134866	김경희	대전 동누리	1134920	최현진	양재 특별헌정대	1134946	김윤정	도곡	1135027	장서경	SNS
1134867	라성희	동대문중앙	1134921	박하늘	여호수아	1134947	김기남	일산	1135028	이지은	SNS
1134868	최지영	OCC	1134922	김동욱	여호수아	1134948	정광진	동대문중앙			
1134883	조영주	대전 동누리	1134923	함연정	여호수아	1134949	임진택	경기A			
1134884	이덕우	인천 믿음	1134924	강태경	여호수아	1134950	최강규	Point5			

이영표 집사 ‘SOCKS UP’ 수익금 전액 기부

이영표 집사(KBS 축구해설위원)가 사회적 기업 ‘SOCKS UP’의 지난해 수익금 전액(약 2천9백만 원)을 기부했다. 아이티 심장병 환우 돕기, 국제 어린이양육기구 ‘کمپ션’ 기부, 아동 복지시설 ‘세움’ 후원 등에 사용했다. ‘SOCKS UP’은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축구 선수 기성용, 개그우먼

송은이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디자인으로 표현한 양말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익금은 세계 각국의 빈곤지역을 돕는데 사용된다. 양말 구매를 희망하는 성도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2739-4433



시즈오카 기 · 도 · 제 · 목

- 4월 22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에 복음의 기쁨이 흐르도록
- 4월 23일(화) 시즈오카가 일본을 축복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 4월 24일(수) 시즈오카의 교회들이 러브소나타에 참여하고 하나 되도록
- 4월 25일(목) 러브소나타로 시즈오카 교계에 연합의 기쁨이 넘치도록
- 4월 26일(금)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 4월 27일(토) 프로그램을 은혜로 준비하고, 출연진이 기쁨으로 섬기도록
- 4월 28일(주일) 이재훈 목사의 설교로 참석자들이 참 복음을 경험하도록

■ 일.하.세.아카데미 수료 간증



/ 송주영 성도(양재 온누리교회)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관문을 통과한 기분이었다. 이후의 삶이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입사초기, 대학을 갓 졸업한 내게는 조직생활에서 보이는 경직된 위계질서, 헛소문, 말도 안 되는 경쟁과 논쟁 등 수많은 문제들이 크게 다가왔다. 그래도 버티자는 생각으로 4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직장 내 여러 부조리의 핵심에 많은 크리스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은 회사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일에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담당부장님께서 작업을 지시하셨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 작업이 더 길어졌다. 말도 안 되는 지적과 요구가 있었지만 참으면서 작업을 끝냈고, 당연히 예배는 참석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너 목사님 아들이라며 왜 오늘 교회 안 갔어? 나는 다녀왔는데?”였다. 안수집사 직분이셨던 부장님의 말은 일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하였고, 마침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 이후 ‘주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와 ‘이를 위해서 먼저 업무로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를 인생의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목표대로 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일.하.세.아카데미를 찾게 되었다. ‘일.하.세.아카데미를 통해 신앙과 일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일에 대한 목적의식과 방향 등을 찾을 수 있을까?’ 등을 고민했다. 일.하.세.아카데미에 그 해답이 있었다.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달란트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Giver가 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문화적 갈등을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일과 예배와 사랑이 연결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것이 정당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주인이자 내 직장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일.하.세.아카데미

일정: 5월 11일~6월 8일

문의: 010-4122-7255

■ 워십라이어 예배학교 간증



/ 김찬희 성도(서대문공동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작년 말 QT를 하던 중에 눈에 들어온 글귀가 있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열심과 봉사는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주함일 뿐이다!”

이 글은 수시로 내 마음을 찢어냈다. 나는 시골 교회 목사님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다. 그 이후 성가대, 찬양팀 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쉼 없이 열심히 봉사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주변에서도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칭찬을 해주었다. 하지만 돌아해보니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한 분주함이었다. 그러다보니 봉사를 하면서도 항상 분주하고, 힘들고, 시간에 쫓겨 피곤함이 가득했다. 짜증이 심해졌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했다. 말씀과 기도를 내 안에 채워 넣지 못했다.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육아와 일을 핑계 삼아 그 시간을 피했다.

하나님이 나를 워십라이어 예배학교로 부르셨다. 의무적으로 3월 예배학교에 참석해야 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참석 해야겠다 마

음먹고 있었는데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늘어갔다. 하필이면 신학기인 3월, 큰아이는 고3, 작은아이는 중학교 입학 앞두고 있었다. 박수가 선교사님 영화제작을 위한 워십라이어 녹음이 밤늦게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부담감이 밀려와 갑자기 예배학교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짝 차 있던 주말 일정을 정리하고 예배학교에 참석했다. 예배학교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점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즘은 내 욕심과 일을 떠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꼭 빠져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된다. 그 시간을 위해 세상적인 일들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됐다.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

■ 대전 Why Mission 스태프 간증



/ 류상은 집사(대전 온누리교회)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을 키운다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 Why Mission 1기에 참여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세워진 온누리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대전 Why Mission 1기가 개설된 이후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시는 조장님과 스태프들의 헌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때 들었던 선교사님의 삶의 간증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큰 은혜와 도전으로 남아있다.

섬김과 은혜 속에서 Why Mission 수강을 마쳤다. 그리고 A국가에 있는 소도시에서 단기선교사로 2년을 헌신했다. 단기선교사로 헌신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곳곳에 전한다. 그 귀한 사역에 대해 배우는 곳이 바로 Why Mission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 대전 Why Mission 5기가 진행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선

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1주차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선교’, 2주차는 ‘구약 성경과 선교’, 3주차는 ‘신약 성경과 선교’, 4주차는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 5주차는 ‘한국 선교 역사’(오전), ‘타문화 이해’(오후), 6주차는 ‘온누리 선교 현황과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지식과 교회의 비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Why Mission을 수료한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북한선교학교, 하우미션 등 선교와 관련한 다양한 스쿨에 참여한다.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모임과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있다. 자신의 가정과 일터, 학교 모든 곳에서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대전 Why Mission은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 이혼자행복학교 수료 간증



/ 임혜진 성도(한성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친정에서 느끼지 못한 자상함에 이끌려 전남편과 교제를 시작했다. 시댁에서 결혼을 서둘렀기에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전남편은 결혼생활 19년 동안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외도를 일삼았다. 전남편과의 결혼생활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친정엄마의 병중에도 전남편의 외도는 계속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됐다.

이혼을 한 후에는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연기했던 것이 들릴까 두려워 외출조차 할 수 없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결혼 전 소망은 커녕 자녀에게 건강한 원가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울며 아픔을 호소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우연히 접어든 책 <이혼자를 위한 힐링 메시지>에서 온누리교회에 이혼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음을 알게 됐다.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뻐고, 정기에배를 거쳐 2018년 봄 이혼자행복학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황혜리 교수님이 들려주

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위로를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31기 이혼자행복학교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정기에배와 지원그룹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내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하나님은 아픔의 시간을 통과한 내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아픔에서 벗어나자 나의 아픔과 고통에만 집중했던 모습을 반성하게 됐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생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자행복학교와 정기에배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며 아이들과 나눔을 시작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회복의 길을 걷자 아이들도 내 모습을 보며 점점 자신의 삶에 집중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혼자행복학교를 통해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큐티강의 표준을 만든다



박홍균 장로
(양천공동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큐티는 ‘온누리교회의 DNA’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큐티는 매주 드리는 순모임을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 또한 큐티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QT사역팀을 담당하고 있던 나는 해외비전교회에서 있었던 큐티 관련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다. 국내 온누리교회 성도가 해외비전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큐티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에 큐티하는 방법에서 다른 점을 발견하고, 서로 자신의 큐티방식이 옳다며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QT사역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큐티강의 표준안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내가 국내에서 경험한 강의들 역시 모두 훌륭했지만, 강의자마다 강조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었다. 성도들에게 균형감 있고, 중요하게 공유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큐티스쿨 교재인 <온누리큐티>를 강의교재로 하고, 노치형 목사님의 주도로 강의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강의를 넘어 온누리교회의 큐티강의 표준이 되어야 하므로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박종길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님의 검토를 받아가며 진행하였다. 그 이후 1년 반 동안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적인 강의교안이 완성되었다.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작하여 강의자가 보다 쉽게, 간증과 더불어 풍성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를 조별 큐티나눔 실

습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강의매뉴얼도 제작하였다. CGNTV의 협조로 노치형 목사님의 큐티강의 동영상도 제작하였다. 50분 강의로 총 4강을 제작하였고, 동영상 사용에 관한 20분 분량의 안내 동영상도 제작하였다.

큐티강의 교재와 동영상은 해외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 목회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해외 선교지에서도 쉽게 큐티강의를 듣고, 선교사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영상은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있다. 해외와 국내 M센터에서 외국어로 번역을 요청해 와서 두란노서원과 영역본 출판물 준비 중에 있고, 6월말 경에 출판될 예정이다. 영역본이 출간되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큐티강의를 ‘베이직큐티’라고 불렀는데 올해 초부터 과목명을 ‘큐티’로 변경하였다. 베이직큐티라는 이름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중급반, 고급반 등 다음 단계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큐티에는 더 이상의 단계적 과정이 없다. 큐티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깊이 있게 하느냐가 바로 중급과 고급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학기 일산공동체와 양천공동체는 첫 4주 동안 순장공부를 큐티강의로 진행하였다. 순모임은 큐티강의 동영상을 들으며, 자신들의 큐티내용을 확인하고, 큐티에 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순모임에서 큐티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사랑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현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순모임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뷔페와 같다’는 비유를 좋아한다. 한 주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회복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순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순모임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체합을 하는 현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사칼럼

나의 존재 이유



민병춘 권사
(강남A공동체)

고1 때 CCC에서 사영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10단계 성서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기 시작했다. 부활절 아침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눈물 콧물 흘리며 부활의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다. 사망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인 나에게 찾아 오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나는 사영리를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다. 버스를 타도 “이 영혼입니까?”라고 주님께 물어가며 복음을 제시했다. 줄줄이 교회에 따라 나왔다. 그때는 그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롬 1:17).

친구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했고, 참 자유함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바다 위를 걸어오던 예수님만 보고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진 것처럼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서 작아지기 시작했다. 성공의 잣대, 학벌의 잣대, 물질의 잣대, 자녀 교육의 잣대 등 여러 세상의 잣대들이 나

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믿음의 담력이 없어졌고, 무력한 성도가 된 것이다. 옛날을 생각하며 ‘그땐 그랬지’라며 회상하기만 했다. 다시 벨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벚꽃이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사순절 기간에 책을 읽었다. <복음과 십자가: 하나님의 때가 차매>라는 황재명 목사님의 책을 읽으며 그 옛날 그 사랑이 그리워 거실에서 부흥회를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복음은 실제 삶 속에서 생명을 창출해 내는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화시키는 행동의 본이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선포하며 이루어가야 할 책무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됐다.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이천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선포된 복음이다. 갈보리 산상에서 두 강도가 못 박혔던 십자가는 내가 매어 달려야 하는 십자가였음을 회개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죄악상들이 다 내 탓임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 갈 담력을 얻기를 기도했다. 휘장 가운데로 찢어 놓으신 새로운 길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기도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 받는 자 되기를 기도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바로 그때 따르릉 벨소리가 울리며 온누리신문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권사칼럼 부탁한다고.

신앙에세이



임경헌 전도사
(양재 차세대)

2007년 4월 22일 주일, 당시 신학생이었던 나는 오uckland 온누리교회의 부름을 받고 전도사가 됐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2년하고 하루가 지나서 목사안수를 받게 됐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그 12년을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 12년 중에서 7년은 성장의 시기였다. 열정으로 뜨거웠던 나는 여러 목회자님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분들을 통해 다양한 목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 기도, 설교 그리고 관계에 탁월한 목사님들로부터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안정적이고 평

안한 삶을 살았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예배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떠나야 할 때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 안주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에 그 부르심에 쉽사리 순종하지 못했다. 3개월 동안의 씨름 끝에 결국 하나님께 승복했다. 그 이후 성장보다는 성숙의 기간을 지나게 됐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새로운 환경인 한국으로 오게 됐다. 그 이후 한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 과거의 안정적이고 인정받던 삶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내 안에 끈질기게 뿌리 내리던 두려움은 대학원 합격소식 이후에도 떠나질 않았다. 금세 모습을 바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었으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으로 나를 공격했다.

남양주 평내동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이번 목사안수를 받는 장소를 보며 재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다. 내가 목사안수를 받게 된 곳은 5년 전 겨울 그 추위 속에서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성경을 필사하며 공부했던 동네(남양주 평내동)다. 그곳은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과 싸웠던 곳이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기도의 소리를 높였던 곳이었다. 놀란 마음을 정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알기 위해 노회 홈페이지에서 노회 소속 교회 수와 분포도를 확인했다. 총 4개의 시찰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시찰 당 40개 정도의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교회들은 전국에 퍼져있었다. 노회가 매년 두 차례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여기는 장소에서 노회가 열리고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다가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는 지나온 과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명을 향해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지치고 지루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엘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른다. 오래 참음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나날들이 지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엘리아의 기도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종교적 생활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는 이러한 영역을 ‘물 탄 기독교(Christianity-and-water)’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 탄 기독교와 같이 그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 사이비, 이단들도 있고, 믿는 우리 안에 있는 물 탄 기독교와 같은 생각, 천국과 지옥, 회개, 심판, 재림, 영적 전쟁 모든 것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믿어. 예배에도 출석해. 필요할 때 기도해. 그러면 됐지.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성을 통해 참된 기독교에 물을 타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고, 물 탄 신앙이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는 최선의 수단, 최초의 수단

이제 엘리아의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아는 맨 처음 무너진 단을 열두 개의 돌로 다시 수축합니다. 왜 열두 개의 돌이냐면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엘리아의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열두 지파를 통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 실제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광야 여정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역사 속에 실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믿음도 무엇인가 잘 해보자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장구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된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오랜 역사의 검증을 견뎌온 책이 없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엘리아가 바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 다음에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도랑에 4개의 통으로 물을 3번을 부었으니 12통을 부은 것입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말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부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이 붙기 어렵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려면 물이 있다고 붙지 않겠습니까? 물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엘리아는 매우 간절하지만 간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하지만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보십시오.

“저녁 곡식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아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와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36-38절).

오랜 시간 외치지도 않았습니 다. 자신을 해치지도 않았습니 다. 간절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완전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아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단, 최초의 수단

으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그 단어 속에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엘리아의 간구는 아닙니다. 엘리아는 최초의 수단이요, 최선의 수단이 기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아의 모든 과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기도 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과 물까지 태우므로 임하셨습니다. 불이 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머뭇거리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며 우유부단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 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39절).

하나님은 엘리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 기 위해 불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도 머뭇거리고 있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엘리아 시대처럼 죄로 강박해지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아의 기도는 귀한 기도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김지연 약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성소수자’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을 묻는 분들이 더러 있다. 동성애 옹호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여자 동성애자(lesbian, 레즈비언), 남자 동성애자(gay, 게이), 양성애자(bisexual, 바이) 등을 성소수자(sexualminority)라

지칭했다. 그러나 요즘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 퀴어(gender queer), 간성(intersex)도 포함해 성소수자라고 주장한다. 이들 앞 글자만 따서 ‘LGBTI’로 표현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없다. 국립국어원에 “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성소수자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느냐?”고 질문하면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한다. 2017년 발의되었다가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된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제21조(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

며 학생의 인권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조례안은 당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법조문 안에 넣는 우를 범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공청회에서 이 용어 사용에 대한 일부 시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LGBTI’가 아니라 대다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적인 취향을 가진 그룹들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의 범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은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다자(多者)연애자도 성소수자입니다. 성적 지향의 일종인 다자연애를 소개하는 게 무슨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끼치기라도 한 겁니까.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亂交)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입니다.”

2018년 3월 14일 한동대학교 인권침해조사 문제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다른 예로 미국과 캐나다 일부에서는 ‘소아성애’ 역시 존중받아야 할 성적지향을 가진 성

‘성소수자’라는 단어의 함정

소수자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B4U-ACT와 같은 인권단체는 “소아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해 달라”며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국의 칼럼니스트들이 우려하고 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친동성애 옹호 진영 논리는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다. 호주 등 동성결합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미 근친상간을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발견된다.

다자연애자를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인터뷰한 기자 역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조사관이 적극 두둔했던 다자연애가 한국 사회에 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미혼 청년의 경우 속칭 ‘양다리’가, 기혼자들은 불륜 및 간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만약 성행위를 실천에 옮겼다면 집단 난교가 되고, 결혼식까지 했다면 중혼(重婚)이 되겠죠.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성적지향에 다자연애가 속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수간(獸姦), 근친상간, 소아성애, 노인성애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현재로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단어이다. 즉, 표준어가 아니며 정확한 뜻도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은어’에 가깝다. 심지어 일부 변태 성욕자가 지도 포함되기도 하는 그 범주가 모호한 용어이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확한 의미의 단어로 그릇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소수자’는 ‘약자, 피해자, 선택된 자’라는 이미지가 중첩되는 느낌이 드는 단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다수자’라는 단어는 ‘강자, 가해자’의 이미지가 연연중에 묻어나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성애 옹호진영이 악용해 미혹하는 언어전술임을 알아야 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 7:25).

언어 프레임, 말을 통해 동성연애 등 그릇된 행위를 소수자의 권리로 미화시키고 법을 고쳐가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현실이 오버랩 된다.

14 온누리신문

2019년 4월 21일(주일) | 제1242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카페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자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

모집: 서빙고 한식조리, 서빙고 전기, 양재

커피숍, 양재 기관, 양지 비전빌리지

한식조리

접수: bible81@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02-3215-3102

상세 모집요강은 사람인 해당 공고 참조

CMN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1일~27일

장소: 몽골 울란바트로 아가페기독교병원

모집: 소화기, 심장, 신장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간호사, 약사, 일반봉사자

문의: 김익석 팀장(010-3326-8058)

두란노 어머니학교 108기 모집

일시: 5월 8일~6월 5일(매주 수 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강사: 한은경,김선숙,박승자,박종길

회비: 12만원(우리은행 1005-381-711002)

접수: 아이스쿨 또는 전화 02-2182-9114

또는 인터넷 www.mother.or.kr

안산M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의료 접수 및 안내 봉사자 모집

(CMN 시온탑과 함께 봉사)

장소: 안산 온누리M센터

일시: 4월 28일 13:30~17:00

문의: 이춘녀 간사(010-7471-1388)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Crow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제1242호 | 2019년 4월 21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경기도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동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광**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li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신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 (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를랜드**
유원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통경**
서현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t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l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HA DAIA-
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S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무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 王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용갑 권진환 김경원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순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성국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전도사(전임)

- 김혜영 김기락 김재승 김진아
문정원 백인규 윤현규 김자미
이우람 이준인 한영철 최대홍
최성규 한은진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세만 박이호
- ◆**협동목사**
곽상학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김기배 김바울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배대환 배대환 박주남
민현식 배대환 박지마 박철중
서수민 신정환 생애배 안하진
이진아 유승미 유진아 윤지연
임선아 채이미 최이현

◆전도사(파트)

- 강성호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성환 김경민 김도일 김세현
김소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철 권철준
김기호 김남원 김병철 김성진
김진래 김진택 김승수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철 권철준
김기호 김남원 김병철 김성진
김진래 김진택 김승수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철 권철준
김기호 김남원 김병철 김성진
김진래 김진택 김승수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철 권철준
김기호 김남원 김병철 김성진
김진래 김진택 김승수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철 권철준
김기호 김남원 김병철 김성진
김진래 김진택 김승수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철 권철준
김기호 김남원 김병철 김성진
김진래 김진택 김승수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배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김은혜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시영
박성준 박재성 박진배 박세민
손정훈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양지현
오은규 유영상 원우영 윤기복
유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시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영준 조성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영 황종연

소천

- 4/12(금) 분당A 고 이선자 권사
- 4/13(토) 가정사역 김성환 집사 부친상 고 김동욱
- 4/15(월) 강촌 최완성 성도 부친상 고 최인철
- 4/17(수) 장애인사역본부 김종영 목사 모친상
고 김정애
- 4/17(수) 이수 하경만 권사 부군상 고 이정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권찬송,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노람자중장기청소년년례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기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원아 입
소 및 하노람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암기, 전도봉사 등
문의: 이진숙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후원물품 모집
내용: 외상 아르신을 위한 후원
후원물품: 물품이 쓰는 삼푸, 바디워시
문의: 송유라 복지사(02-3407-277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주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원 팀장(02-703-6011)

번도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문의: 이영현 팀장(02-985-3609)

제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를망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성적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지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CMN 시온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6일~14일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비용: 의사 50만원, 일반인 25만원(항공권 별도)
분야: 의사(특히 치과, 정형외과, 외과), 간호사, 약사,
어린이사역, 일반봉사자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김포M센터 반주자 모집
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예배
장소: 김포M센터(양곡프리자) 703호
문의: 신정민 목사(010-2204-7316)

생명의 삶 예레미야 개관세미나
일시: 4월 22일 오전 10시-12시
접수: www.duranno.com/seminar(신청순)
문의: 02-2078-3252

더멋진세상 해외사업 담당자 모집
기간: 4월 28일까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하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영어 의사소통 가능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분야: 우간다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운영
문의: 02-2271-2246
*www.abetterworld.or.kr 참조

CGNTV

KNOCK
미니휴먼다큐

오늘도 똑똑똑

동대문 쪽방촌 사람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불청객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 이야기

영상보기 유튜브에서 'KNOCK(노크)' 채널 검색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KNOCK
미니휴먼다큐

약사이모

*4월 26일(금)
유튜브 'KNOCK(노크)'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의 사연 있는 주민들에게
활기와 온기를 불어넣는 이미선 약사의 일터신앙백서



2019 CGNTV 시청자 설문조사

- 참여방법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내 설문조사 페이지 방문
- 조사기간 4월 15일(월)~4월 24일(수)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